

---

# '19년 제2차 서울시 지명위원회

---

2019. 12.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회의개요〉

- ◆ 일 시 : 2019. 12. 9.(월) 10:00~12:30
-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8층 간담회장2
- ◆ 참석현황 : 서울시 지명위원회 위원 8명
- ◆ 안 건 : 총 18건
  - 지하철 역명 제정 및 병기 5건, 하천 명칭 제정 1건, 시설 명칭 제정 4건, 공원 명칭 제·개정 8건

## 주요 회의 내용

### <간사>

- 인사말
- 참석위원 소개
- 서울시 지명위원회는 본래 조례상, 행정1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시장단 회의 참석 관계로, 부득이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서울시 지명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행정국장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 인사말
- 전문가분들이 오셨으니까 잘 논의해서, 오늘 안건이 양은 많지만 또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보고를 간사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 안건보고

<부위원장>

-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안건부터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안건은 5호선 하남선 연장 H1역에 대한 명칭 제정안입니다.  
한 건 한 건씩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호선 H1역 명칭 제정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과장>

- PT자료를 통해 제안설명

<부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과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000위원>

- 여기 주민 선호도 조사를 하셨는데, 이게 몇 명을 하신 거예요?

<도시철도과장>

- 역 주변 500m 안에 있는 지역주민 100명을 표본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000위원>

- 너무 작지 않나요? 5800m 안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도시철도과장>

- 그 지역 안에는 거주지가 별로 없어요.

<000위원>

- 그러면 그 선호도가 의미가 없는 거죠.

<안건관계자>

- 저희가 이게 2008년도부터, 강일역을 신설해달라고 서울시에 민원을 냈을 때부터, 모든 주민들하고 구민들이 다 강일역이라고하고 있어서요.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선호도 조사를 했을 때도, 대부분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000위원>

- 그러면 그렇게 쓰시면 되죠. 그런데 100명은 너무 작으니까요.

<부위원장>

- 그동안 선호도 조사하는데, 혹시 기준 인원 같은 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관행적으로 뭐 보통 여론조사 할 때는 1,000명. 그런 거는 없었죠?

<000위원>

- 왜냐하면 이게 지금은 주민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데, 나중에 만약에 주민 선호도 조사가 이렇게 샘플링을 해서 분명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지역에 많은 주민이 살 텐데, 이미 여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사실 이 근처 500m 내에 있는 사람만 이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혹시 문제 제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강일리버파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파트 주민들하고 고덕리엔파크 이분들하고는, 뭐 이렇게 ‘서로 자기 이름을 써야 된다.’ 그런 거는 없나요?

<안건관계자>

- 그런 거는 없었고요. 이게 선호도 조사하기 전에, 후보 역명을 공모를 받았습니다. 전화나 뭐 인터넷이나 받았는데, 대부분 다 한 명에서 한 다섯 명 정도로 아주 소수의견으로만 제출이 돼서, 그런 것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000위원>

- 왜냐면 지난번에 지명위원회 해보니까, 막 아파트 명 가지고 서로 자기 쪽이 되어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셔가지고, 제가 여쭙봤습니다.

<도시철도과장>

- 강일동 22-14번지 일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일을 대표하는 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000위원>

- 또 그 전 지역이 상일동이라 상일역으로 돼 있는 거 보면, 강일역으로 해도 괜찮은지.

<도시철도과장>

- 상일동도 있고 고덕동은 고덕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 첨단테크노밸리가 어디 위치하나요? 2안에 첨단테크노밸리라는 것은 누구의 아이 디어인가요?

<000위원>

- 거기 삼성하고 옆에 모여있어요

<도시철도과장>

- 이게 주민 의견에, 그 조사를 했을 때 나온 6% 의견이 첨단테크노밸리였는데, 자세한 조사에 대해서는 강동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관계자>

-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후보 역명을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그 삼성테크노밸리가 31% 정도 나왔습니다. 다른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소수의견이어서 애네들은 다 빼고, 원래는 1, 2, 3안 정도를 수렴을 해야 되는데, 3안조차도 선택하기가 어려워서 두 개로 했습니다. 그래서 2안이 첨단테크노밸리역이 되는 것은, 아래쪽으로 저희가 삼성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첨단업무단지가 있어서, 그거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1안 강일역으로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 이어서 두 번째 안건부터는 역명 병기 안입니다. 그래서 병기 안은 뭐 나름대로 원칙들이 있으니까, 4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주시고, 같이 논의해서 진행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 PT자료를 통해 제안설명

<부위원장>

- 그러면 먼저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부터 논의하시죠. 주민들이 강감찬이라는 걸 병기하는 걸 원하나요? 관악구청에서 누가 오셨나요?

<안건관계자>

- 구 의회에서도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수렴이 돼서 왔고요. 그다음 주민 의견도 자료에 있는 것처럼 71% 그렇게 찬성의견이 있습니다.

<도시철도과장>

- 참고로 덧붙여 보고드리면, 강감찬의 호가 인현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동명이 인현동이고, 그 낙성대역 인근에 인현초등학교와 인현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낙성대는 강감찬 장군의 생가터입니다. 그래서 그 강감찬타운이라고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 그런데 우리 역사에서 그 소위 장군님들이 많이 계신데, 다른 장군님들의 이름이 병기된 적은 없죠?

<도시철도과장>

- 그래서 그런 내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보편타당한 위인의 기준을 어떻게 삼을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역사에서 배운 우리나라의 3대 대첩 중 귀주대첩이 강감찬과 관련있어, ‘우리 어렸을 때부터 전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위인이다.’ 라는 판단을 저희 실에서는 내렸습니다.

#### <000위원>

- 제가 이렇게 보면 여기 샘플링이 돼 있는데, 전부 인원이 틀려요. 그래서 이다음에는 샘플링의 기준을 주민의 몇 명, 주민이 만약에 뭐 10만 명이면, 1만 명이면 1,000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반대가 낙성대역이 적지 않더라고요
- 그리고 낙성대 자체가 사실은 강감찬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별이 떨어진 그거를 상징하는 건데, 거기다 괄호치고 강감찬이라고 하면, 이중표기하는 게 아닌가.

#### <도시철도과장>

- 낙성대를 강감찬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병기를 하는 것은, 그거는 낙성대는, 낙성대로 이해하시는 시민들에게는 낙성대로 이해를 해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강감찬이라는 그 지명을 넣어서 그 지역의 특징스러운 그런 그 역명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자치구의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악에서는 참고로 강감찬축제를 매년하고 있으면서, 지역 특화 축제로 자리매김을 하고, 올해도 성황리에 귀주대첩 1000년을 맞이해서 강감찬축제를 하고, 그거에 대한 포럼과 그 역사 인식 제고에 나서고 있는 걸로, 관악구에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상사용에 관한 부분이 있지만, 이번에 저희가 4건을 함께 올린 이유는, 그래서 뭐 외람되지만 이걸 세 개는 하고 네 개를 뭐 하나는 통과시켜 주지 않고 이런 거보다도, 저희가 이 수도권 지하철의 사인을 바꾸는 비용이 한 3억 이상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바꾸든 두 개를 바꾸든 네 개를 바꾸든 같은 비용이 듭니다. 동일 시트지를 바꿔내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도시교통실에서, 진짜 명분 있고 타당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가장 우리 쓰는 말로 핵심적인 함께 바꿔야 될 지명 네 가지를 선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는, 또 저희 서울시 위원회에서 시 의원님들에 충지가 모아진 의견이고, 또 마지막에 DDP라는 것은 당연히 서울시에서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못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상정하게 됐다는 점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000위원>

- 유상사용 병기 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철도과장>

- 유상은 기본적으로 상업적인 그런 겁니다. KB국민은행 이런 것을 병기하게 된다면, 그 비용을 KB에서 내야합니다.

<000위원>

- 오늘 중요한 기준들을 말씀해주셨는데, 여기 이 기준 절차에 들어맞지 않으면 좋은 말씀하신 것을 추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강감찬 장군에서 직함을 뺀다든지, 그다음에 3대 대첩을 선정했다든지 다 좋은 기준인데, 세부지침으로라도 만들어 줬으면 좋을 것 같네요.

<000위원>

- 여기 그럼 강감찬 장군 생가터는 어떻게 구에서 운영하나요? 아니면 후손들이 운영을 하나요?

<도시철도과장>

- 낙성대라는 그 영조물은 있습니다. 영조물이 있어서, 아마 그 문화본부에서 시비로 보조금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건관계자>

- 저희가 종친회에서 매년 제를 지냅니다.

<000위원>

- 지금 서울 시내 이 전철, 뭐 지하철 명 중에 사람 이름이 인명이 들어간 게 몇 개나 되나요?

<도시철도과장>

- 처음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경춘선에 김유정역이 있습니다,

<000위원>

- 그거는 철도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이게 한번 올라왔었던 거였죠?
- 역시나 뭐 역사상에 장군도 계시고 왕도 계시고 문인도 계시고, 뭐 여러 역사적 인물들이 많이 있기는 있는데, 인명이 들어간다는 부분은 조금 저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뭐 역사적 인물을 기리고, 역사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는 하지만 ‘특정 인물을 역이름에 넣는다는 부분이 어

떤 의미가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자치구에서 이게 주민 의견이 먼저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관악구 자체에서 먼저 이 의견을 내신 건가요? 지금 주민 의견을 받았는데, 이게 자치구에서 관악구에서 의견을 내서 지금 주민 의견을 받으신 거죠?

<도시철도과장>

- 관악구에서 특화작업을 하면서 이 여러 가지 강감찬 축제도 하고, 이와 관련된 그 퍼포먼스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일환이 있을까?’ 하면서 낙성대와 강감찬과 밀접한 어차피 동전의 양면과 같으니까, 낙성대 하면 뭐 시쳇말로 서울대인지 뭐 낙성대인지, 뭐 이렇게 농담 삼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구체
-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자기네 어떤 국가를 대표하는 위인들에 대해서, 지하철 역명에 쓰는 그런 나라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 라는 문헌 조사를 저희가 또 한 바도 있습니다.

<000위원>

- 제가 기억하기에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걸 보류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 이름을 쓸 때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라는 부분에서 나중에 보류하고, ‘기준을 갖고 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갖고 오셨네요.

<도시철도과장>

- 저희가 그 위원회에서 어려운 객관적인 기준을 잡아 오라는 말씀에, 문헌 조사하고 또 법적인 자문도 얻었더니, 저작재산권법에 저작재산권의 보호 기간이, 생존해 있을 때와 사망한 후 70년이라는 것을 그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외국사례를 봤더니, 70년이 지나면 어떤 명사화되는 그런 거에서 착안을 해서, 이 기준을 저희가 잡게 됐습니다.

<000위원>

- 역사적인 영웅이라는 건 항상 새로 발굴되고, 시대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관악구에 지금은 강감찬이지만, 관악구가 또 다른 지역문화축제에 뭔가 거기를 개발을 한다면, 그러면 그때는 또 역명을 바꿔야 되나요?

<도시철도과장>

- 참고로 우리가 역명을 바꾸는 거는 아니고, 역명에 병기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독일에 베를린지하철은 빌헬름 카이저 그 교회가 유명하잖아요. 그럼 원래는 빌헬름 카이저역이었습니다. 역명도 변경이 되는 거예요.



○ 시대적인 의미를 반영하는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000위원>

○ 정확하게 그 바운더리를 조금 세부화시키는 작업이 하나 있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 강감찬의 ‘장군’ 자 빼는 거는 찬성인데, 이 분이 문하시종 벼슬을 지냈던 분이기 때문에, 꼭 장군으로 볼 수도 없어요.

<도시철도과장>

○ 기준을 정하라고 했을 때 저희는 논란이 됐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대 대첩을 못 박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특정 성향의 인명 사용은 지양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위인이라는 인명 사용은 허용한다.’ 그래서, 위인의 범위를 조금 명기를 해놨습니다.

<부위원장>

○ 대부분 동의하시는 걸로 해서 그 안으로 하시고, 마곡나루역에 대해서 논의해주시죠.

<도시철도과장>

○ PT자료를 통해 제안설명

<부위원장>

○ 다른 공원들 다 병기돼 있나요? 월드컵공원, 서울숲, 올림픽공원은 역명이고, 북서울꿈의숲, 여의도공원?

<도시철도과장>

○ 애당초에 어떻게 보면 서울식물원이 마곡나루보다 선행했다면, 서울식물원역이 됐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행 역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병기하는 이런 의견을 올리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마곡나루(서울식물원)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 그 다음에 7호선 용마산역(용마폭포공원) 논의해주시죠.

<000위원>

○ 괜찮네요.

<000위원>

○ 좋습니다.

<000위원>

○ 괜찮을 것 같네요.

<000위원>

○ 괜찮습니다.

<도시철도과장>

○ 종량구에 랜드마크공원입니다.

<000위원>

○ 그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기 때문에 괜찮아요. 용마산보다 훨씬 이게 나아요.

<부위원장>

○ 그다음에 DDP입니다.

<000위원>

○ 저는 찬성인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반대가 많습니까? 진짜 문제가 있나요?

○ 저는 사실 DDP 병기하는 거 찬성이거든요, 외국인들 기준으로. 그런데 ‘왜 이렇게 반대가 많을까?’ 저는 그런 의문이 조금 듭니다.

<000위원>

○ 영어로 표현해서 반대하는 거 아닌가요?

<000위원>

○ DDP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그게 있더라고요.

<000위원>

○ 그런데 사실 젊은 사람들은 다 DDP라고 그러죠.

<부위원장>

○ 이거는 대부분 다 찬성하시죠? 그러면 병기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천관리과장님 입장해주십시오.

#### <하천계획팀장>

-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은평구 진관동에 은평뉴타운이 있는데, 그 하천의 명칭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PT자료를 통해 제안설명

#### <000위원>

- 제 생각에는 뉴를 영어 뉴로 쓰면, 이거 혼성어가 돼서 안 되잖아요. 뉴가 그 실사변에 소 ‘축’ 자 쓰면 ‘실, 엮인다, 묶는다, 매듭짓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리음이 아니라 니은입니다. 그래서 은평에 은혜 ‘은’ 자, 그다음에 엮을 매듭 ‘뉴’ 자. 평뉴타운 1, 2, 3지구로 정확히 통과하거든요. 그리고 외부인이 여기 접근 안 해요. 그래서 정말 주민들을 위한 천이에요.
- 시작부터 3지구 폭포동 선림사에서 시작을 하고, 2지구에 가면 또 야외공연장도, 우리가 계획을 할 때 이 물길도 바뀌었어요, 그때 복개된 거 다 뜯어내고 막 형편 없이 돼 있는 거를, 블록 단위로 계획을 하면서, 물길도 다 인공적으로 저희가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뉴타운 주민이 쾌적하게 수변 환경친화적인 걸 하려고
- 은뉴, 그리고 다른 것도 다 은뉴, 은뉴 그러는데 말이 은평의 영어 ‘new’ 자가 섞인 것처럼 보이니까 뉴를 한자어로 바꿔서 은평뉴타운을 다 엮어준다, 1, 2, 3 지구를. 그다음에 주민들이 거기 그 천변에 우리가 조깅 할 수 있게 다 산책길을 만든, 조깅 하지, 유모차 끌고 나오지, 강아지 산책하지. 그러니까 생활에 다 엮여있는 하천이에요, 1, 2, 3지구를 전체를 걸쳐서. 외부에는 거기 접근도 안 합니다. 거기 주민들만 100% 쓰고 있는, 그들의 생활하천이거든요.
- 진관내동은 사라진 지 벌써 십몇 년 된 그런 이름을 붙이는 것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또 뉴타운이 오래 된다고 해서 ‘뉴’ 자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영원히 은평뉴타운이라는 이름으로 가는 거고. 발음이 비슷하지만, 사실은 뭐 일반인이 우리가 한자병기를 안 하니까 은뉴라면 ‘아, 은평뉴타운 뭐 영어 섞었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게 일반인이 이해를 한다고 해서, 큰 문제 될 거는 없지 않겠습니까

#### <000위원>

-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지명이라는 것은, 이 대한민국 사람이 누구나 다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그게 뉴타운 안에 있고 주로 99% 주민들이 활용한다고 해도, 그랬을 때 은뉴천은 사실 ‘어감이 되게 조금 생소하다.’ 그런 느낌은 들었어요.

<000위원>

- 그런데 지금 공원명칭 재개정 기준 및 절차 보면, 공원이기는 합시다마는 또 역명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불리고 또는 역사적 사실이나 옛 지명이나 지형이나 전설이나 이렇게 해서, 기념이 될만한 명칭이라고, 하여튼 역사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지형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근거를 해서, 이름을 정하는 그런 기준을 지금 정하고 있는데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과거에서 찾는 게 더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 폭포동천이라고 하는 이름을 쓴다.’ 라고 한다면, 지금 구파발천이나 파발천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논란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000위원>

-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다면 쓰는 거는 어떨까. 그 지형적인 부분하고 조금 관련을 해서 하는 부분이 조금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아예 역사적으로 찾는다면, 구파발천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지역적으로 이게 굉장히 ‘구파발이 있던 곳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다, 아니면 뭐 작은 부분만 지금 이렇게 걸쳐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그렇다면 그것도 조금 ‘실제 이 지역은 해당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아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오히려 ‘폭포동 현재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익숙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000위원>

- 폭포동은 또 3지구 위에만 해당이 돼요. 그것도 전체를 대표 못 합니다. 제일 큰 거는 2지구거든요

<000위원>

- 파발역과 짝 해서 구파발천이라고 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000위원>

- 여기서 소라는 자연마을이 있었는데, 지금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 저기 맨 위에 이 천이 합류되는 지점이 창릉천인데, 그 앞에가, 그 부분 하천 부

분 평지들이 거기가 진관내리라고 했고, 그 산등성이가 있죠? 그 산등성이 안에  
가 진관외동이고, 이 줄기의 끝에 폭포골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말이, 진  
관내동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 보면 그게 계집 ‘여’ 자에다가 기생 ‘기’  
자 쓰는데, 그거는 그 뜻은 아니고 차자표기인데, 그게 이 소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 다시 설명하면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창릉천이 여기서 이렇게 흘러오  
고, 그다음에 이 천이 여기 이 지점에서 합류가 되죠.

- 그리고 이 금암리라고 하는 거는 이쪽에 있어요. 그리고 저는 ‘구파발이 멀리  
있다.’ 라고 하는데, 17년도 지도를 보면 구파발이 여기에 있어요, 구파발리가  
구파발마을이.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안 돼서, 우연히 제가 다른 연구 때문  
에 이게 17년도 자료를 가져왔는데, 여기 있고 여기가 진관외동이고 여기가 진관  
내동이고, 그다음에 이 고트머리에 폭포동천은 없지만 폭포골이라고 있어요.
- 폭포동에 있어요, 17년도 자료에. 그리고 이게 진관내리인데, 여기에 여기서  
하는 게 있는데 소라고 하는 거는 물이 조금 고여있는 데를 말하는 거거든요.
- 여기서 말하는 말이 이쪽에 있을 것 같은데 안대로 뭐 구파발천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 <안건관계자>

- 1차 때 조사도 하고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성이나 위계성이 하천명에는  
있어야 된다, 은평구만 한정적인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지명으로서 효과성이  
나 대중성 있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한 게 파발천으로, 처음에 구파발천으  
로 했다가 파발천으로 한 게, 우리 ‘파발축제나 은평구 주민 의견을 들어서 파  
발축제도 하니까 파발축제도 널리 알리자.’ 의미에서 파발천으로 1차 했던 거  
고요. 이번에 구파발천으로 했던 거는, 구파발이 예전에는 중심가 쪽에 구파발이  
있었고요. 지금 역이 한쪽에 가 있는데, 구파발 하면 ‘은평구에 대표적으로 구  
파발역이 옛날에 역사적으로 구파발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가 파발천이 시  
발점이 되고, 은평구에서 시작해서 널리 퍼지자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겨있  
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구파발천으로 저희가 저희 입장에서는 했습니다. 주민  
들 의견도 대표 의견도 들어왔는데, 파발천이 안 된다고 하면 구파발이 여러 사  
람이 많이 알고 있고, 역 명명도 있어서 홍보하기 좋다. 그래서 구파발로 했고  
요. 아까 위원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위쪽에  
백화사 계곡이라고 거기가 여기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 저번에 일단 폭포동천은 한번 또 폭포동이 상류에 있다고 해가지고 폭포동천으로 불렀는데, 저희들이 구청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왜 폭포동 썼냐고 주민들 의견이 분분했었어요. 왜냐면 ‘상류에만 있어서 상류에만 왜 하나, 밑에 주민들의 의견이 많아서, 저희가 그래서 폭포동천은 명이 제외됐었고요. ‘여러 사람이 이 지역 진관동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명이 뭐냐?’ 해가지고 했던 게, 그래서 저희들이 파발천하고 구파발천 이렇게 나온 겁니다.주민들 대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파발천 아니면 구파발천이 더 홍보적이거나 여러 사람이 알기에는 더 편하다, 새로운 명명보다는구파발천을 추천했습니다.

<000위원>

- 구파발천도 뭐 우리가 없을 것 같네요.

<000위원>

- 저도 구파발천이 오히려 상징성이 있고, 왜냐면 지명이라는 것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민들이 주민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000위원>

- 구파발천에 찬성합니다.

<000위원>

- 저기 보면 구파발천은 12% 29명, 파발천이 35명 15%, 64명이 은뉴천 27%, 그러니까 거기 제가 살기 때문에 아는 이야기예요. 주민들이 다 은뉴천이라고 불려요.

<000위원>

- 지명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기를 원래 지명에서 상징성이 있는 걸로 정하는게.

<부위원장>

-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영어 약자를 이렇게 썼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 같네요. 그렇게 적절한 접근방법은 아닌 거는 같고, 그다음에 파발천보다는 구파발천이 약간 퍼센트는 낮은데 ‘거기가 제일 알려진 지명이 구파발이니까, 그걸 그냥 쓰자.’ 라는 게 지금 일단 위원회 대다수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저는 사실은 위원장 직무대리 자격으로 말씀드리면, 은평뉴타운으로 하는 게 제일 지역주민의 의도에 맞는데, 그거는 조금 길고 영어가 들어가니까, 은평천이 없으면 은평천이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왜 그거는 안으로 안 들어가 있죠?

<000위원>

○ 은평구는 전체 지명을 대변하는것입니다.

<부위원장>

○ 자, 그러면 다시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은뉴천에 동의하시는 분?

( 거수 )

○ 그다음에 구파발천에 동의하시는 분?

( 거수 )

○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대로 구파발천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 도로 시설명은 큰 쟁점은 없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송파구 장지동~동부간선도로 나들목 명칭,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도로계획과장>

○ PT자료를 통해 제안설명

<부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따로 없으시죠?

○ 그러면 위례나들목 자치구와 주관과 의견이 일치하므로, 위례나들목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 두 번째 안건 지하차도 설명해주시죠.

<도로계획과장>

○ PT자료를 통해 제안설명

<부위원장>

○ 자치구하고 주관과 다 문정지하차도라는 의견입니다. 혹시 다른 의견 없으시죠?

○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 송파구 장지동 지하차도 해주세요.

<도로계획과장>

○ PT자료를 통해 제안설명

<000위원>

○ 숫자를 붙이는 거는 웬만하면 피하라고 했는데요

<000위원>

○ 주민들도 위례중앙지하차도를 제안하신 거는 아니에요?

<도로계획과장>

○ 지금 자치구에서는, 위례가 일괄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위례2지하차도를 했습니다.

○ 지역 전체 중심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정 그다음에 장지 그다음에 복정 그리고 위례인데, 그거는 이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데 개발사업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명칭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이 지역 전체를 아무래도 위례가 아우르기 때문에, 위례를 넣는 거는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례중앙지하차도는, 저희들도 ‘차선으로는 이게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은 있습니다.

<000위원>

○ 위례2가 아니라 위례중앙이나 위례2나, 하여간 앞에 위례가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000위원>

○ 위례2는 2를 붙이는 거는 절차에 문제가 있는데요.

<도로계획과장>

○ 그 지역에 의견은, 위례가 들어가면 중앙이 들어가도 별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당시에는 후보지에 위례중앙이라는 말은 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도로명 자체가 위례중앙로기 때문에, 위례중앙로에서 가장 긴 지하차도는 더 이상 없을 겁니다.

<000위원>

○ 그러면 도로가 위례중앙로니까 위례중앙지하차도가 좋을 것 같은데요.

<000위원>

○ 구지명위원회에서는 왜 2를 인정을 했어요?



<도로계획과장>

- 그때 당시에 2순위로 됐던 게 위례진입지하차도, 장재지하차도, 꼬리별지하차도, 아뜰렛지하차도, 아랫나들지하차도 이랬는데요. 당시 위례중앙지하차도는 저희들한테 올라와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낸 거고요, 실무적으로. 아무래도 주민들의 지지가 많은 명칭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도 시설물 관리 측면에서는 위례지하차도, 위례2지하차도 이렇게 말이 조금 쉬울 것 같아서 말씀드린겁니다.

<부위원장>

- 숫자를 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보시는 거죠?
- 그러면 위례중앙지하차도로 결정하시겠습니까.

<부위원장>

- 그다음에 서초구 우면동 교량 설명해주세요.

<도로계획과장>

- PT자료를 통해 제안설명

<000위원>

- 주민들은 우면이라는 명칭을 원하죠? 이 명칭을,

<도로계획과장>

- 주민들은 선암은 과천 쪽에서 서로 원하는 거고요. 주민들은 우면을 원합니다.
- 저희들은 사실 실무적으로 우면산터널하고 헛갈릴 걸로 보여졌는데, 우면산고가 가 되면, 위치가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 그래서 우면산고가교로 하는 게 조금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아무래도 시설물 유지 차원에, 구분돼서 보여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000위원>

- 터널은 서초터널이죠? 그런데 그게 빠져나온 다음에 아마 봉천터널로 또 이어지고요. 그래서 터널이 이 서초 일대에 고가가 우면산터널이 또 있잖아요, 예술의전당에서 내려오는 게. 그래서 조금 헛갈릴까 봐.

<000위원>

- 그런데 서초터널 중심부가 우면산 정상에서 있어요. 정중앙을 통과하거든요. 터널 자체는 서초터널이라고 지었지만 우면산이라는 이름을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부위원장>

- 그러면 우면산고가교로 결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 마지막을 공원녹지정책과장님.공원 이름 관련해서 8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한 번에 한번씩 들으시고, 이견이 있으신 것만 검증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8건 일괄 설명해주시죠.

<공원녹지정책과장>

- PT자료를 통해 제안설명

<부위원장>

-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명칭은 누가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처음에 작명은 누가 합니까?

<공원녹지정책과장>

-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지명위원회 하면서, 주민센터에서 해당되는 어린이 공원 같은 경우는 지역 이용이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안건관계자>

- 작명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올라오는 거로 하는 사항입니다.

<000위원>

- 저는 벽오동공원, 두데미공원 그다음에 돌이음 이런 거는 조금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 햇살공원, 해님공원 앞으로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을 게, 이런 거는 전국에 너무 많을 것 같아요.
- 되도록이면 ‘지역의 무언가와 예전 지명이나 이런 거랑 조금 연결시켜서 지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 있었습니다.

<000위원>

- 그래서 문의하면 공원이 구마다 국가급, 시급 그다음에 이렇게 근린공원, 주제공원 그다음에 어린이 공원, 소공원 뭐 그리고 나중에 기타에 해당하는 쉼터 이런 것까지 꼭 다 이름을 붙이는데,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여기 쪽 보니까,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봤더니, 뭐 저기 소공원 성북구 별빛누리 같은 경우는 뭐 949 그리고 석관동은 426, 이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 아파트 내에 그냥 푸른지구해

당하는조경밖에 안 되는 곳에 이렇게 이름을 다 붙인다는 거가, 꼭 다 붙여야 되는지?

- 두 번째는 이렇게 어린이 공원과 소공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왜 소공원이라고 하는 명칭은 왜 언제부터 붙이게 됐는지.
- 그다음에 어린이 공원은 실제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의 시설이 되어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어린이 공원으로 붙인 게 많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부분을 명칭을 나중에 붙이기보다는, 처음에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넣으면서 그걸 성격화 하는 게 맞지, 이렇게 다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어린이 공원에 해당하는 거는 실제 어린이들 놀 수 있는 것도 없고, 어떤 면에서 소공원이 더 어린이 공원인 것 같은 것도 있고 이 성격 자체가 이렇게 다른 데, 이런 명칭을 이렇게 따로 굳이 구분을 해야 되는지 의심이 들어요.

#### <공원녹지정책과장>

-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가져서, 저희들도 지명위원회에 올라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공원의 규모가 뭐 100만이 넘는 것부터 1,500 아니면 소공원 같은 거는 그거보다 더 작은 공원이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 그렇게 따지면 위계는 다르지만 약 2,800개의 도시계획시설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명을 붙이는 거에 대해서는, 법적 상호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 소공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공원의 이용 행태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는 어린이 공원밖에 없었습니다, 최소 단위공원이. 그런데 소공원 같은 경우는 그걸 다 수용하지 못해서, 규모라든가 행태를 고려해서 소공원이라는 제도가 들어갔고, 또 다양한 주제공원도 시장이 할 수 있게 이렇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공원의 성격은 그런 특정하지 않는 걸 담아내고, 규모가 작으면 소공원이 들어가는 거고, 어린이 공원 같은 경우는 교육적인 부분이라든가 많이 고려해서 기본적인 시설이 다 법적으로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은 다 담고 있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노인세대하고 어린이세대 많아지고 어린이가 적어지는 부분이 있으니, 같이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방법으로 정비하든가 보완하는, 이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도 실무적으로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 하나가 너무 이름들이 작은 단위에 다양하게 많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권, 이용권이 사실은 ‘어린이 공원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 길어야 250m에서 300m 범위 내니까, 그 지역에서 불려지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화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명이라든가 유래 이런 걸 고려해서, 앞으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 <000위원>

- 제가 조경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저부터 설명을 드리면, 강북지역 같은 경우도 이 소공원이 갖고 있는 위치, 장소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이름도 너무 많으니까, 아마 나중에 생기는 이름들이 일반적인 이름들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데는 큰 문제는 저는 없을 것 같은데요.

#### <000위원>

- 먼저번에 제가 봤더니 100개 정도씩 있는데,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어린이 공원을 먼저 정해놓고 이런 부분을 더 정해놔서, 그 지역 명칭을 쓰다 보니까, 그 후에 이렇게 지금 이런 재정비라든가 주택재개발로 인해서 소공원이 만들어질 때, 그때 실제 쓸 수 있는 이름은 더 큰데도 쓸 수 없게 돼 있고 이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어린이 공원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지역 명칭보다는, 이런 것처럼 어린이들한테 맞는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 그리고 그랬을 때 여기 보면 근린공원이라든가 소공원, 주제공원 이런 거는 조금 지역성을 반영하면 좋을 것 같고, 어린이 공원은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부위원장>

-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공원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 오늘 안건에 대해서, 의견 주신 최종 결론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간사가 한번 정리를 하고, 식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 총괄 정리된 내용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하철 역명 제정 및 개정 관련 5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5호선 H1역 명칭 제정 건은 강일역으로 의견을 주셨고,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명칭 병

기 건은 낙성대(강감찬)역으로, 지하철 9호선 마곡나루역 명칭 병기 건은 마곡나루(서울식물원)역으로, 지하철 7호선 용마산역 명칭 병기 건은 용마산(용마폭포공원)역으로, 지하철 2, 4,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명칭 병기 건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DDP)역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 다음은 은평구 진관천(PT상 진관동) 하천명 제정 건은, 구파발천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 그리고 도로시설명 제정 4건 관련입니다. 송파구나들목 건은 위례나들목으로 의견을 주셨고, 송파구 문정동 지하차도 건은 문정지하차도로, 송파구 장지동 지하차도 건은 위례중앙지하차도로, 서초구 교량 건은 우면산고가교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 다음은 공원 관련 8건입니다. 성북구 관련 소공원 4건은 차례대로 맑은소리, 별빛누리, 돌이음, 도란도란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송파구 가락동 어린이 공원은 해님공원으로, 송파구 오금동 근린공원은 벽오동공원으로, 송파구 문정동 근린공원은 두데미공원으로, 마지막 노원구 월계동 어린이 공원은 햇살공원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